

본당 소식

♣ 오늘의 전례

- 오늘은 연중 제18주일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을 찾도록 합시다.

♣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Ferragosto) 미사 안내

- 일시 : 8월 15일(토), 11시
- 장소 : Azienda Agricola La Geretta
(Via Cascina Gera, 3, 22030 Eupilio CO)
- 일정 : 10시 30분 집합, 11시 미사 후 식사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7.8월 휴가철 관계로 각종 회의 및 모임은 없습니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32.26€ • 교무금 000.00€

전례 성가

입당 : 66 (주의 백성 모여오라)
봉헌 : 215 (영원하신 성부)
성체 : 499 (만찬의 신비)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파견 : 61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6년 8월 2일

(녹) 연중 제18주일

본기도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1독서 (이사야서 55,1-3)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1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 2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35.37-39)

형제 여러분, 35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혈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37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39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마태오 14,13-21)

그때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13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나섰다.

14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15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16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17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19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20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가량이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를 살피 주시어, 익명성과 고독이 깊어지고 있는 도시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창의적인 방법을 발견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새로운 길을 찾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분쟁과 파괴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굽어보시어, 기술과 사회 구조의 발전을 주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실현함으로써,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참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3.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로우신 주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를 도와주시어,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이해와 배려로 참사랑을 키워 가게 하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가르침으로 하나 되고 복음 말씀을 실천하며, 이웃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